

# Style

조선일보

APRIL 2019  
vol.188





BVLGARI  
ROMA

B.zero1 XX YEARS OF AN ICON

BVLGARI.COM



 *Loro Piana*



*Salvatore Ferragamo*





16



22



1904년 탄생해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산토스 드 카르띠에 워치. 2018년에 선보인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의 정제성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스트랩과 케이스를 잇는 날렵한 라인, 배럴 위 스크루 디테일, 그리고 손목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에 럭셔리와 스포츠의 기능을 더했다.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다크 그레이 얼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으로, 1847MC 컬렉션 중 하나이다. 문의 1566-7277



24



10

- 16 **2019 ART BASEL IN HONG KONG** 지난 3월 말 홍콩은 '뜨거운' 아트 주기를 보냈다. 아트 바젤 홍콩의 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만 8만8천여 명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고 이불, 서도호 같은 한국 미술계 스타 작가들이 한층 조명을 받았다. 화려한 위용을 내세우다 보니 초기의 참신함이 떨어진다든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뽐내며 홍콩의 3월을 되잡아본다.
- 19 **BORN TO FLY** 투박하고 견고한 외관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메카니즘이 조화를 이룬다. 비행에 향한 동경과 아날로그 시대를 향한 향수를 충족시켜줄 파일럿 워치.
- 20 **TREASURE OF RUBIES** 언제나 드라마틱하고 경이로운 주얼리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반클리프 아펠. 이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메종이 올해 선택한 테마이자 컬렉션은 바로 '루비'다. 지난 3월, 방콕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루비 컬렉션은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다.
- 22 **여행자, 꿈과 함께 떠나다** 인생에서 여행이 갖는 의미는 언제나 남다르다.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변화를 주며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떠남'의 가치. 그 여정에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함께한다면 삶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이는 럭셔리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 남다른 헤리티지와 철학을 간직한 여정에 동참해보자.
- 23 **LET'S GET UGLY** 런웨이와 리얼 웨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글리 스타일. 그 트렌드를 이어갈 2019 S/S 신제품을 모았다.
- 24 **ANOTHER BAG** 나를 표현하는 이번 시즌 또 하나의 백. 2019 S/S 백 컬렉션.
- 32 **CURIOS CASE** 궁금하고 궁금하다. 쏟아지는 상상 속에서 고른, 울퉁 사용해보면 좋을 남성 그루밍 신제품 10.
- 33 **THE ULTIMATE SUIT** 브리오나를 입는다는 것은 단지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인 정신을 소유하고 클래식 문화를 향유함을 뜻한다. 브리오나의 2019년 S/S 컬렉션을 소개한다.
- 34 **TRULY EXCEPTIONAL** 비세론 콘스탄틴은 지난 2백64년의 풍부한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들어 있는 시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소장 가치가 높은 빈티지 타일피스를 완벽하게 복원해 다시 살아 숨 쉬도록 만든 컬렉션, 레 콜렉션서를 소개한다.
- 35 **LIKE CHERRY BLOSSOM** 만개한 빛꽃이 햇빛에 반짝이며 흩날리는 봄. 그 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찬나를 담은 타사키의 사쿠라 골드를 소개한다. 타사키 고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는 사쿠라 골드 핑크 골드의 붉은 기와 노란 기를 달아내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 36 **STOP THE SUN** 따사로운 봄볕이 그저 반갑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면 효능이 더욱 강력하고 우수한 선 스크린 제품을 만날 차례다.
- 37 **ELECTRONICS STORE** 살림을 새로 장인해야 하는 신혼부부와 참신한 제품에 주목하는 얼리 어답터를 위해 준비했다. 생활은 편리하게, 공간은 더욱 쾌적하게 연출해줄 최신 소형 가전 11.
- 38 **EDITOR'S PICK** 봄 햇살로 설레는 마음을 담아 <스타일 조선큐>가 준비한 4월의 뷰티 신제품.

# Style 조선일보

Issue.188 April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포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큐>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큐>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큐>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ublic & News



it starts with a dream



**Jewel COOL DEFINED**

남자도 여자도 함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같이해서 더 좋은 젠더리스 주얼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골드, 베이지 골드 등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로 출시했다. 화이트 골드 미디엄 코코 크러쉬 링 4백만 원대 **사철 화인 주얼리**. 잘 다린 깔끔한 셔츠 칼라에서 빛을 발하는 자스트 영 플루 카라 바 1백80만원 **가르피에**. 매일 착용해도 질리지 않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아이코닉한 알파벳 T 모양을 살린 18K 로즈 골드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 1백00만원대, 블랙 코팅을 한 스틸 티파니 T 스퀘어 브러시 링 1백80만원대 모두 **티파니**. 지름 40.9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알라게터 스트랩을 매차했다. 가는 손목에도 매력적인 남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포르투가저 크로노그래프 9백75만원 **IWC**. 크라이아티브 디렉터 타쿠미 나카가와 디자인한 풀 형태가 매력적이다. 한쪽에만 포인트로 착용해도 멋스러운 리판드 라벨다운 호른 이어링 2백75만원 **타사키**. 단순하고 명량한 듯 모티브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낸 18K 옐로 골드 자스트 영 플루 링 2백70만원대 **가르피에**. 2개의 달아진 면을 이어주는 디자인으로 끌어낼 수 없는 영원한 인연을 상징하는 라임 에버링스 링 2백만원대 **소메**. 에디터 **장미윤**

옐로 골드 주얼리



**Fashion CHARMING POINTS**

가방, 벨트, 넥크리스 등 어디에나 응용 가능하다. 워트 넘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백 참 & 키 링 액세서리.

(왼쪽부터) 키 링 또는 백 참으로 연출 가능한 고풍 모티브 액세서리 가격 미정 **다울 맨**. 부드러운 카프 레더를 꼬아 만든 파인애플 모양 참 35만원 **안아 힌드미치**. 에 벨로 산형한 질감을 입힌 토끼 모양 키 링 13만5천원 **보스 맨**. 정교한 마크트리 기법으로 해마 무늬를 완성한 마크롱 서어 백 참 가격 미정 **모아나**. 양면에 하수소를 상징하는 로고를 프린트한 가죽 소재 재킷 루이 비통 백 참 & 키 링 44만원 **루이 비통**. 에디터 **이현미**

옐로 골드 주얼리



**Beauty DOUBLE EFFECT**

샤임도, 물감도 예외 없이 멀티태스킹이 필수인 시대. 다채로운 필요를 한번에 채워줄 독특한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글로스 모먼트 액티 뷰티 글로스** 입술, 눈, 볼에 단독으로 바르거나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면 어느 각도에서나 글래머스하게 빛나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 비타민 E와 코퀸트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한다. 위부터 각각 #플린트스, #리핀센5, 2ml 3만6천원. **샤일 비올 에방시벨 트랜스퍼어전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윤곽을 연출해 얼굴에 생기를 되살려주는 글로 스킨.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하이리터로 눈가를, 눈썹, 볼, 양 볼에 부드럽게 발라 광채를 더하거나, 투명한 컬러 표현을 위해 크림 블러셔를 바르기 전 블러셔 베이스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3g 5만1천원). **자침시 영 광워트 래디언트 드롭** 촉촉한 피부관리를 지원하는 일무미네이팅 베이스. 미세한 필 입자를 포함한 가벼운 텍스처로 베이스 단계에서 크림 또는 파운데이션과 섞어 사용하면 얼굴 전체에 자연스러운 광이 생긴다. 혹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친 뒤 윤곽을 강조하고 싶은 부위에 내장된 브러시를 사용해 톱풀러를 비타민 C를 함유한 하이리터 같은 역할을 한다(15g 6만1천원). **샹타이 로즈 드 메이 페이스 오일** 프랑스 남부 그라스 지역에서 자라는 5월의 장미를 주성분으로 오직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만 담은 제품. 피부에 풍부한 비타민 C를 공급하며 강력한 안티에이징 및 피부 재생 효과를 발휘한다. 세럼, 크림과 블렌딩하거나 마스크 팩을 발일 때 사용하면 기초 케어의 효과를 배가하며 메이크업 제품에 섞어 연출하면 좀 더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30ml 2만5천원). **비비 브라운 핏 루즈 포 린스 맨** 린스 및크에 모두 사용 가능한 크림 타입의 멀티 제품. 중간 정도 투명한 자연스런 발색되어 여러 번 덧칠해도 어색하지 않다. 가을을 내장한 콤팩트한 패키지로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것 또한 장점. 카키바일 컬러 있는 제품은 #라리스 코랄(3.7g 4만4천원). 에디터 **이현미**

옐로 골드 주얼리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똑똑하고 편리하게 진화하다, 일상에 윤기를 더해주는 스마트 기기**

볼이 내배를 펼쳐고 있는 가운데 똑똑하게 제 기능을 다하면서도 경제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입은 스마트 기기가 눈길을 잡는다. 디자인은 비박 유형에 따라 성능과 사용 시간을 지능적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을 갖춘 무선 청소기 디자인 V11™ 컴플리트와 개인용 공기청정기 디자인 퓨어미 7™를 선보였다. 3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한 디자인 무선 청소기는 사용 중 모드, 배터리 사용 등의 기기 상태를 LCD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 관리를 도와준다. 또 개인용 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를 보다 정확하게 나에게 분사해주는 코어 플로우 기술과 0.1미크론 크기의 미세 먼지를 99.95%까지 걸러주는 HEPA필터를 장착하고 최대한 소음 없이 작동하도록 음향적 설계를 반영한 제품으로, 사무실 개인 공간이나 침대 옆 등의 공간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안됐다. 청소 걱정을 덜어주는 캄캄한 로봇 청소기도 늘 시선을 사로잡는 품목이다. 유진로봇의 '이이클레브 O5는 'AI 스마트 맵 에디터라는 기능으로 원격 청소 실행이 가능하며 모서리나 구석 청소 기능에도 중점을 둔 제품이다. 가격과 무게 부담을 다 뺐다고 강조하는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도 눈길을 끈다. 440g의 무게와 날렵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인 제품으로 2천6백20만 원의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와 최신 영상 처리 엔진 디지 8(DIGIC 8)을 장착했다. 풀프레임 카메라는 무겁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카메라는 여성도 웬만하면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 있다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역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 가장 낮은 가격대(1백64만9천원, 캐논 e스토어 가격)도 주목할 만한 요소. 라이카는 4천7백30만 원의 풀프레임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라이카 Q2를 내놓았다. 업그레이드된 OLED 뷰파인더를 갖추고 전력 소모가 낮아졌음에도 4K 고해상도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제품. 또 클래식 느낌 물씬한 디자인으로 베스트셀러인 D-LUX 라인에 더 뛰어난 시야를 담은 라이카 D-LUX 7도 함께 선보였다. 에디터 **고성연**



디자인

유진로봇

**Exhibition**

**김태혁 개인전, <네트워크 아트>展**

회화와 판화를 이루는 점점에서 작품 세계를 구축해 독자적인 예술 여정을 걸어온 김태혁의 개인전이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린다. 2019년 아트 조선 온 스테이지 첫 번째 전시(Art Chosun On Stage 1)로 기획된 <네트워크 아트>전이다. 캔버스 표면에 물감을 세우는 '스탠딩' 연작, 소량의 물감을 화면에 점한 3차원 공간에 부유하게 하는 'OFF' 연작, 그리고 최근에는 'OFF' 연작의 범주 내에서 각자 무늬의 픽셀을 잃은 물감으로 채우는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점·선·면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며 도전을 계속해온 김태혁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부단한 조형 실험의 결실이자 회화에 대한 작가의 근원적 고민이 담겨 있는 'PLANE' 신작도 만날 수 있다. 수많은 점을 특수한 선 위에 하나하나 올려 거대한 네트워크 망이 펼쳐지는 듯한 김태혁의 작품에는 대자연의 질서 속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생명의 숨결 같은 리듬감이 흐른다. 점·선·면, 그리고 공간을 재현이나 환영을 위한 보조적 기능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조형 원리로서 다루어 실험을 거듭해온 작가를 가리켜 미술 평론가 김영호는 "공간 탐구의 미술사적 성취라는 측면에서 루초 폰타나의 작품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김태혁의 조형 실험을 둘러싼 방법론과 의미 체계는 화면에 펼쳐진 그물망, 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펼쳐진다"고 설명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무일 없음). 문의 02-724-7832 에디터 **고성연**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for her Selection**

경쾌한 컬러와 톡톡 튀는 액세서리로 완성한 테니스룩.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카드, 휴대폰, 지갑,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의 1만 원대 액세서리.

필수 액세서리 컬러의 나사 (1만 원대) **OFF**

나사 가죽 조각인 패셔너블 수직형으로 엮어 만든 메시 사이즈의 가벼운 토트백. 68x42cm, 1천1백28만원 보태기 배너다.

테니스 라켓에 부착하면 미려한 주홍을 풍기는 핑크나 민트색이 매력.

상세 폭스 모티브의 휴대용 케이스 6만 원대 **메종 키트네 by 바이커.**

자다들 시그처 밴드를 다한 선바이저 형태의 디올 클립! 선글라스 4만 원대 디올 by 사원아웨어.

무엇이든 2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는 유니폼 브랜드를 테니스 라켓 액세서리까지 7만 원대만!

세계가 충격이나 자상에 노출될 경우 자동으로 오자를 개선해 정확한 시간으로 재설정하는 GPD 시스템을 적용한 콘케스트 V.H.P. GMT 플래시 세팅 1백 20만 원대 론칭.

상세 폭스 모티브의 휴대용 케이스 6만 원대 **메종 키트네 by 바이커.**

체트 브로 모티브로 코트를 줄 줄라한 리틀 스타가 6만 원대 배너.

로고 장식 액세서리 헤드 밴드 가격 미정 사벨.

신규 라인 컬러의 라켓인 핑크 스포츠를 2만 원대 배너.

만년초 갈라미네타 트윈으로 재를 준 화이트 가죽 신 스타가 2만 원대 배너.

스포츠 스타가 2만 원대 배너.

라코스테 스포츠 02-550-1180  
 로로 피아나 02-546-0615  
 론진 02-310-1597  
 바블라 02-2203-1931  
 빌리 02-3467-8935  
 사원아웨어 02-565-6940  
 바이커 02-543-1270  
 사벨 030-200-2700  
 에르메스 02-542-6622  
 할스 1833-4204  
 힐타 02-3470-9879  
 오프 화이트 02-517-7572  
 토리 스포츠 02-552-2233  
 보태기 배너 02-3438-7682

www.tasaki.co.kr



**TASAKI**  
BRIDAL

컬러 블록으로 스포티브한 느낌을 강조한 울로 원피스 17만8천원 라코스테 스포츠.

오버사이즈의  
옐로 컬러 렌즈가  
돋보이는 더블  
브리지 선글라스  
30만 원대 프라다  
by 룩스타카.

나구성이 뛰어난  
견고한 가죽과 코터다기  
없는 실루엣이 맞스로운  
보스 맨, 49x28cm,  
가격 미정 보스 맨

두툼 더블랩 브레이슬릿  
29만 원대 토즈.

강각적인 알터스트를  
프린트한 텀블러  
3만 9천 원 룩스타카  
by 갈무리아 기프트샵.

반누가방 작편다를  
캐이아이에 줄드 개장  
5만 원대 에펠비즈.

전 세계 3919개의 골프 코스 지도를  
내장해 골프 경기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기록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카투드 위치  
2백50만 원대 테그호이어.

전 세계 3919개의 골프 코스 지도를  
내장해 골프 경기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기록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카투드 위치  
2백50만 원대 테그호이어.

한쪽 사이트만 스트라이프  
차단한 화이트 레더 벨트  
8만 원대 잭 니콜라우스.

캐이아이에 줄드 개장  
5만 원대 에펠비즈.

ASERIALS 5만 원  
에티어 아메이 아사르테 아사르, 신형

골프공  
케이스 15만 원대  
아사 맥클린  
by 갈무리아  
기프트샵.

핀드 위에서 향향을  
막아줄 클래식한  
디자인의 통은통  
베드라 11만 원대  
잭 니콜라우스.

12구 세트로  
판매하는 내은 컬러  
골프공 7천 원 왓.

보스 맨 02-515-4088  
룩스타카 02-3442-1830  
토즈 02-3438-6008  
갈무리아 기프트샵 02-6905-4199  
로로 피아나 02-546-0615  
테그호이어 02-548-6020  
잭 니콜라우스 02-754-6826  
에르메스 02-542-6622  
엘로드 1588-7667  
루이 비통 02-3432-1854  
리포트 02-6137-5100  
만상웨어 02-3479-1944  
왓 02-2218-3635  
타이틀리스트 02-3014-3800

키무플리우 프린트  
스탠드 백 46만 원대,  
(왼쪽부터) 718 MB  
아이언, 클럽 TS2  
드라이버, 클럽 TS3  
퍼어웨이 우드,  
718 AP3 아이언  
모두 가격 미정  
타이틀리스트

for him  
**Selection**  
멋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필드 위 감각적 스타일 제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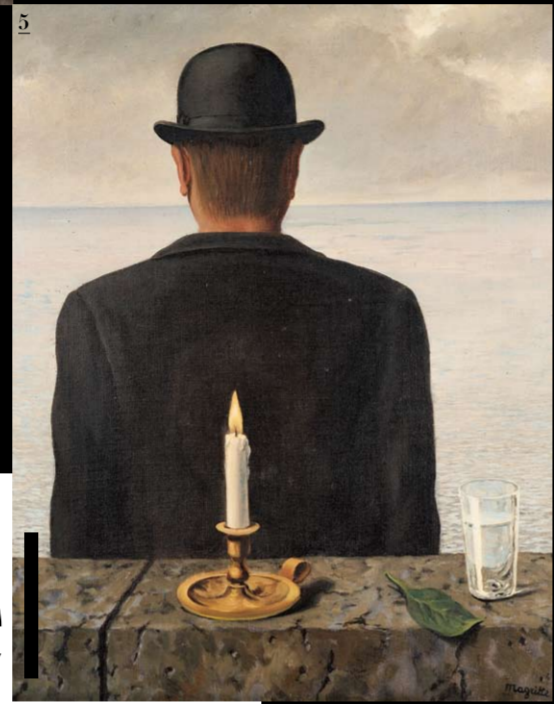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CAN DAEJ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S AK PLAZA BUNDANG STORE  
T 02-23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1 2019 아트 바젤 홍콩 기간 M+ 파빌리온에서 선보인 20세기의 저명한 일본계 미국 작가 노구치 이사무(Isamu Noguchi)와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 잔인 보(Danh Vo)의 2인전(4월 22일까지). 2 올해 아트 바젤 홍콩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이불 작가 작품이 전시된 PKM 갤러리 부스. 3 미국 작가 에드 루시(Ed Ruscha) 소장품을 전시한 가운데 미술 시장의 동향을 발표하면서 패션 토크를 개최했던 UBS 라운지. 4 홍콩 센트럴 지구의 아트 특화 건물인 H 퀸스 빌딩에 자리한 허우저 엔드 위스 갤러리는 거미 작가로 유명한 현대미술계 거장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22~2010) 전시로 큰 주목을 받았다. 1~4 Photo: SY Ko & 아트 바젤 홍콩 기간 개최한 서울 옥션의 홍콩 경매에서 20세기 초현상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서여인의 노래(Le Chant des Sirènes)'가 인화 약 72억원에 낙찰됐다. 경매 시작가의 2배가 넘는 기록이다. 사진 제공 서울옥션.



# 2019 Art Basel in Hong Kong

지난 3월 말 홍콩은 뜨거운 아트 주간을 보냈다. 아트 바젤 홍콩의 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만 8만8천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고 이불, 서도호 같은 한국 미술계 스타 작가들이 한층 조명을 받았다. 화려한 위용을 내세우다 보니 초기의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뽐낸 홍콩의 3월을 되짚어본다.

아트와 사랑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아트 애호라는 개념 자체에 매료된 것인지? 아트 바젤 홍콩의 디렉터를 지냈고 올 초 타이베이 당다이 아트 페어의 시작을 꽤 성공적으로 이끈 매그너스 렌프루(Magnus Renfrew)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 바젤 홍콩의 영향력과 더불어 정부 주도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식되면서 홍콩의 아트 신이 놀랍도록 풍성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동서양이 한데 녹아든,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제3의 공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작은 메트로폴리스가 글로벌 창조 허브로 존속하려면 다른 차원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렌프루도 이 점을 지적한다. 그저 내가 미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도취되는 것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미술 생태계의 현실을 다 포용할 만큼 사랑하는 것의 간극을 대중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이다. 어쨌거나 홍콩 정부가 공들여 갈고닦아온 '브랜드 홍콩' 전략은 일단 잘 들어맞은 듯싶다. 여기에는 '아트 위크'라 불리는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열린, 올해로 7회를 맞은 아트 바젤 홍콩의 지분도 상당하다. 특히 올해는 VIP 프리뷰를 포함해 5일간(3월 27~31일) 열린 아트 바젤 홍콩의 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만 8만8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니 성적표만 보면 주춤 혹은 호프탈 수밖에. 도시 곳곳을 문화 예술 콘텐츠로 수놓은 '장외'로 눈을 돌리면 더 성형이었다. 경쟁한 갤러리들이 들어서 있는 센트럴 지구의 페더 빌딩, H 퀸스 빌딩 등은 물론이고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흐르는 홍콩섬 남쪽의 왕척항 갤러리 지구, 매립지를 문화 예술 지구로 탈바꿈 중인 시주룽 문화 지구의 전시장 M+ 파빌리온 등 발목을 팔아야 할 동선이 꽤 넓어졌다. 홍콩의 신흥 명소 타이퀸 센터에는 '시류'를 꿰뚫은 명품 브랜드들이 터를 잡고 매력적인 전시 공간을 선보였다. 이 기간 홍콩을 찾았다면 '선택과 집중'의 묘가 필수다.



6 아트 바젤의 공식 후원사 중 하나인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 프라미는 한국 아티스트 안창현과 협업해 빛의 방정식을 자신의 예술적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갤러리에서 선보였다. 사진 제공 라 프라미. 7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이 현재 홍콩에서 가장 핫한 복합 문화 단지 타이퀸 센트(Tai Kwun, Centre for Heritage & Arts)에서 개최한 전시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한 탄생시킨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컬렉션을 몇 중앙 관공서 건물에서 전시했다. 사진은 게임 룸(Game Room)으로 꾸민 공간. 사진 제공 루이 비통. 8 홍콩 바젤의 재단 HOCOA의 주축으로 인기 작가 카우스(KAWS) 개인전 (KAWS: ALONG THE WAY)가 홍콩의 문화 공간 PMCO에서 열렸다. 관람객이 물러 에뮬 해드 앙장이 삼지 않았던 전시. Photo: SY Ko & 프라미는 타이퀸 센터의 건물 중 배려 블록 3층 전시를 아트, 미션, 패션들 이유로 프라미 컬럼 '프라미 모드(Prada Mode)' 행사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사진 제공 프라미.



## The People

'조 단위'로 추정되는 개개 규모, 전시장 바깥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아트 관객. 그렇지만 '한'의 규모만으로 '성공'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많은 이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그저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다. 시간이 '불' 단위로 나누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홍콩 아트 주간에 이 복잡미묘한 글로벌 생태계의 구성원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봤다.



금융 허브 홍콩에 '아트 허브'라는 수식어를 달도록 만드는 데 큰 몫을 한 아트 바젤 홍콩. 도시 곳곳에 자리한 온갖 전시 공간이나 부대 행사장을 제외하고 홍콩 컨벤션 센터의 아트 바젤 주 전시장만 봐도 전 세계 36개국에서 2백42개 갤러리가 참여했으니 점점 커지는 '장외'까지 감안하면 규모와 쓸쓸한 경제 효과를 짐작할 만하다. 세계 어느 주요 도시든 이처럼 큰 글로벌 행사가 열리면 '스타' 작가 얘기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다. 아무래도 현대미술 '정체'이다 보니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빈번히 거래되는 작가들 위주로 흐름이 돌아기 마련이니까. 아트 피플이 모이는 만큼 지구촌 차원의 뒷담화도 접할 수 있다(올해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도 스타 작가의 성 추문도 들려왔다. '구경꾼'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는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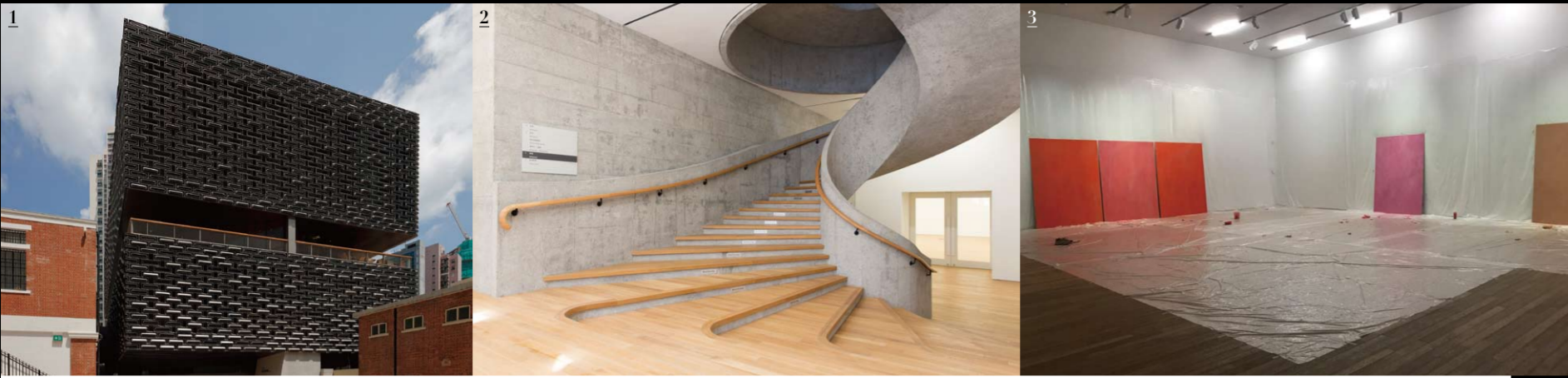


아트 바젤 홍콩의 숨은 공신, 알렉시 글라스-캔터  
럭셔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현대미술의 메인 스트림을 살펴보면 명품 잡지 <태틀러>도 괜찮은 참고서인데, 해마다 바젤 개최 기간에 맞춰 나오는 이 잡지의 아트 부록 표지를 누가 장식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지난해는 홍콩에 입성한 메이저 화랑을 이끌며 올해 '부스 매진'을 스스로 뽑았던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와 독일의 유명 작가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가 표지에 나란히 등장했는데, 올해는 서도호가 장식했다. 다수의 작품이 소개되면서 인기를 누리던 인물도 또 다른 한국 작가 아불이었다. 단연 화제를 모은 아불의 작품은 은빛 비행선 같은 'Willing to Be Vulnerable-Materialized Balloon'. 갤러리 세 곳이 협업해 아트 바젤 홍콩의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에 선보인 작품이다. 갤러리 부스 사이에 대형 설치 작품을 소개하는 인카운터스는 늘 인기를 누리는 플랫폼이다. 그 배경에는 인카운터스를 5년째 이끌고 있는 큐레이터 알렉시 글라스-캔터(Alexie Glass-Cantor)가 있다. 시드



1 페이스 갤러리는 H 퀸스에서 미국의 거장 메리 코르(Mary Corse) 개인전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여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의 피가 활짝차람 다르게 나타난다. Photo: Boogi Wang © Mary Corse, courtesy Pace Gallery 2 빛과 인식이 라는 주제를 꾸준히 탐구해온 메리 코르. Courtesy Mary Corse 3 대형 설치 작품의 존재감(이 문보에는 아트 바젤 홍콩의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을 5번째 밑줄로 일렉시 글라스-캔터(Alexie Glass-Cantor) 큐레이터. Photo: Zan Wimberley 4 올해 인카운터스 부문에 설치 되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이불(Lee Bul) 작가의 작품 'Willing to Be Vulnerable-Materialized Balloon'(2015/2019). 중국의 사립 미술관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5 '서파와 집안, 곡선의 흐름이 인상적인 태국 작가 미트 지이 인(Mit Jai Inn)의 인카운터스 작품 'Planes(Electric)'. 6 요 몇 년 새 새로운 아트 지구로 부상한 홍콩섬 남쪽의 왕척항에 새롭게 등장한 특 약셀 베르보르트(Axel Vervoord) 갤러리에서는 그들전 (Infinite Mutability)가 열렸다. 이 갤러리의 수장 보리스 베르보르트(Boris Vervoordt)는 '갤러리스트는 뒤로 물러나고 작가들이 작품을 표현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가들이 전시 구성에 참여했다고. 사진은 현으로 된 7개의 커다란 링이 인상적인 김수자(Kimsooja)의 1980년대 작품, 'Untitled'(1991). 7 《Infinite Mutability》 전시 풍경. 벽에 걸린 작품은 가나 출신의 세계적 작가 엘 아-투이(El Anatsui)의 'E-witness'(2017). 바닥에 놓인 조각 작품은 멕시코 작가 보스코 소디(Bosco Sodí)의 'Untitled'(2017). Courtesy Axel Vervoor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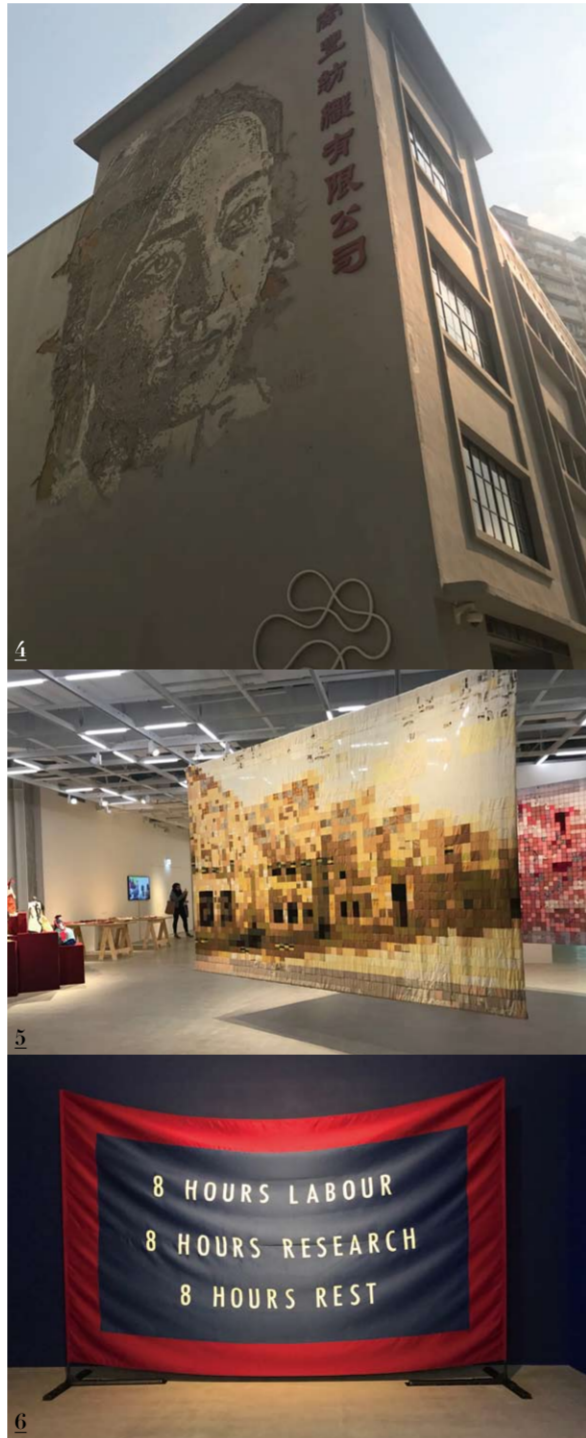
1 지난해 5월 홍콩 센트럴 지구에 들어선 명소 타이퀸 센터 내에 있는 현대미술관 JC 컨템퍼러리. 스위스의 저명한 건축가 듀오가 이끄는 헤어초크 엔드 드 뢰른(HdM) 건축 설계 사무소의 작품이다. 2 JC 컨템퍼러리의 내부 공간. 나선형 계단은 작품의 일부이기도 하다. 3 오는 4월 28일까지 열리는 JC 컨템퍼러리의 기획전 《The Violence of Gender》의 전시 풍경. 4 추엔완(Tsuen Wan)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전시 공간 CHAT(Centre for Heritage, Arts & Textile). 섬유산업 전성기인 1960년대에 난펑그룹(Nan Fung Group)이 운영한 섬유 공장을 문화 허브로 탈바꿈시킨 더 밀스(The Mills) 프로젝트의 결실 중 하나이다. 5, 6 현대 CHAT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해 텍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작품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획전 《Unfolding: Fabric of Our Life》가 열리고 있다. 7, 8 홍콩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갤러리들이 계속 모여오고 있다. 지난해 아트 북화 건물로 지은 H 빈스에 갤러리들이 줄줄이 입성했는데, 올해는 뉴욕, 런던 등에 갤러리 공간을 갖춘 메이저 화랑 레비 고르비(Lévy Gorvy)가 홍콩 센트럴 지구 세인트 조지 빌딩 1층에 지점을 냈다. 첫 전시로 자연을 주제로 칸딘스키, 모네, 조안 미켈, 송동, 하오량 등 동서양 작가들의 아우른 《Return to Nature》전이 5월 18일까지 열렸다. Photo: Kilmin Lee

## 타이퀸 센터, 홍콩인들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요즘 홍콩에서 가장 핫한 곳을 꼽으라면 대부분 센트럴 지구의 타이퀸(Tai Kwun) 센터를 1순위로 거론할 것이다. 지난해 5월 문을 열자마자 디지털 시대의 빠른 진과 속도에 힘입어 단숨에 현지인만이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글로벌 명소가 떠올랐다. 일단 건축물의 오라부터 범상치 않다. 중앙 경찰서, 빅토리아 감옥 등 16개 옛 정부 건물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복합 문화 단지로 재탄생시킨 장기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신축 건물도 두 곳 있는데, 그중 하나인 JC 컨템퍼러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가 헤어초크 엔드 드 뢰른(HdM)이 설계를 맡아 완공 전부터 화제가 된 현대미술 전시장. 마침내 베일을 벗은 타이퀸 센터는 '올드 & 뉴'의 조화가 묘한 매력을 자아내는 건축물 자체로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선 레스토랑, 카페, 바 등이 저마다 '잇 플레이스'라서 인기 만점이다. JC 컨템퍼러리는 HdM의 강렬하고 우아한 설계도 인상적이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콘텐츠가 더 매혹적이다. 개관 이래 줄곧 수준 높은 전시를 열어왔는데, 이번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선보인 두 기획전 《Contagious Cities: Far Away, Too Close》와 《The Violence of Gender》 역시 호평받았다. 예전대 '19금' 미디어 아트 작품도 눈에 띈 《The Violence of Gender》의 경우에는 더러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기발함을 품은 콘텐츠를 만나는 재미를 준다. 탄탄한 자본력이 뒷받침된 '비영리' 기관의 장점을 한껏 살려 현대미술을 규모와 수준을 갖춘 전시로 풀어내되,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소장품을 두지 않고, 외부 큐레이터를 초빙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부러운' 운영 철학이 버티고 있는 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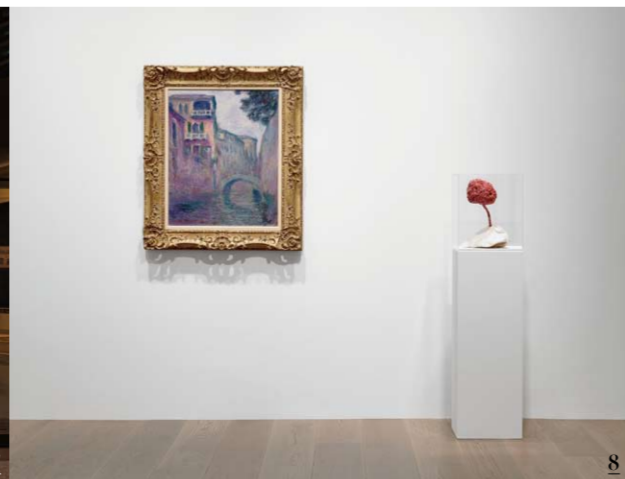
## CHAT, 애달고도 사랑스러운 공예 미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다

중심가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추엔완(Tsuen Wan) 지역에도 주목할 만한 비영리 공간이 있다. 'CHAT'라 불리는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인 센터 포 헤리티지 아트 앤드 텍스타일(Centre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 1960년대에 난펑그룹(Nan Fung Group)이 운영한 방직공장을 문화 허브로 탈바꿈시킨 더 밀스(The Mills) 프로젝트의 결실 중 하나로 약 17,000㎡(약 1,579㎡)의 널찍한 공간에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진다. 건물 꼭대기도 전시장으로 활용되는데,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산이 사이에 들어오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작가가 참여해 텍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작품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획전 《Unfolding: Fabric of Our Life》 등이 열리고 있다. 세계를 누비는 작가도 만날 수 있지만, 비자 문제로 예술가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이민 노동자와의 협업 작품을 전시하는 CHAT는 현실적이면서도 정감 어린 순수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간다. 홍콩의 현기증 나는 상업성에서 꽤 자유롭기는 하지만, 사실 타이퀸 센터의 하드웨어나 그 속을 채우는 콘텐츠는 가히 블록버스터급 아닌가. 물론 고층 건물이 즐비한 홍콩 중심가든 왕창항처럼 새로운 아트 로드가 형성되는 번두리든 도시 곳곳에서 문화 예술을 품은 공간을 마주치는 일은 여전히 반가운 일이다. 규모가 어땠든, 상업용이든 비영리든, 이러한 공간들이야말로 도심 속 오아시스이자 다채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아마 내년 봄 매립지를 매머드급 문화 예술 지구로 탈바꿈시키는 시주류 문화 지구의 핵심 콘텐츠인 현대미술관 M+가 문을 연다면 이 생태계는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될 것 같다. 글 **고성연**



# The Spaces

인구밀도가 높고 인파로 북적거리는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이 주는 힘은 크다. 상업적이든 공공성을 띤든 '문화 예술'로 호흡하는 공간은 인간에게 활기와 영감을 불어넣고, 때로는 위로와 휴식을 선사하기도 하니까. 올봄 아트 주간에 홍콩을 찾은 이들에게 참신한 풍경과 경험으로 다가왔을 '뉴 스페이스'를 소개한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IWC 피아렛 워치 크로노그래프 어린 왕자 에디션 특별 에디션은 상징하는 미드 블루 다이얼이 돋보이는 모델로, 케이스 백에는 오프를 걸고 검을 들고 있는 어린 왕자의 모습을 인그레이빙했다. 항공 엔진에서 발전하는 자기 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대우 연철 케이스에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79320을 탑재해 최대 12시간까지 스톱 및 누적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압 감응에 인정한 전역 글라스 사파이어, 기록상 높은 다이얼 및 테이트 디스플레이가 피아렛 워치의 연모를 더한다. 9백30만원대, 문의 02-3789-5555

브라운링 내비게이터 1 B01 크로노그래프 43 블루 다이얼, 레드 크로노그래프 초침, 금장 날짜 로고, 풀니 모양 바젤 등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델. 가리, 평균속도 등 비행 시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는 회전형 슬라이드 링을 적용한 일방향 회전 바젤이 특징이다. COSC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을 받은 셀프윈딩 무브먼트 브라운링 칼리버 아을 장축해 70시간 이상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며 케이스 백에는 상비운도를 최적으로 환산하는 눈금을 새겨 넣었다. 9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론진 린드버그 워치 세컨드 워치 뉴욕에서 파리로 이어지는 대서양 횡단 무작위 단독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를 위해 1931년 개발한 뜻깊은 타임피스를 재현했다. 지름 47.5mm의 커다란 케이스, 독특한 모양의 크라운, 여러 층으로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크리스털 글라스와 기록상을 높인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 등 항공 시계의 특징을 강조했다. 군사적 조정을 위한 회전식 바젤과 세컨드 핸드를 맞추기 위한 회전식 다이얼을 장착했다. 5백47만원, 문의 02-6905-3519

오리스 빅 크라운 프로그래밍 114 자사에서 다섯 번째로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핸드윈딩 칼리버 114를 장착한 모델로, 무려 102개 이르는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일대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레드 칼리브 포인트 핸드로 세컨드 타임존의 시간을 30분 단위로 읽을 수 있도록 했고, 9시 방향에 스몰 세컨드와 날짜창을,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창을 배치했다. 인덱스를 슈파우미노바 코팅 처리하고 사침과 분침에도 황광 물질을 상감 방법으로 채워 넣어 어두운 곳에서도 시침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 9백30만원, 문의 02-757-9866

오메가 피아스터 1946 스텝형 세컨드 리미티드 에디션 제한적 세계대전 당시 오메가 타임피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준 공군, 해군의 믿음에 보답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1946년 처음 선보인 피아스터 모델을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지름 38mm의 스틸 케이스를 케이스에 반사 처리한 오메가 로고로 장식한 돌출 다이얼을 장착했고, 탄생 70주년 기념 로고와 소철 모터 보트, 글로스터 미터어 전투기를 인그레이빙한 케이스 백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오메가 코-엑스퍼트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6으로 구동한다. 7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디터 이혜미**



# born to Fly

투박하고 견고한 외관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조화를 이룬다. 비행을 향한 동경과 아날로그 시대를 향한 향수를 충족시켜줄 피아렛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아트스페이스

# treasure of Rubies

언제나 드라마틱하고 경이로운 주얼리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반클리프 아펠. 이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메종이 올해 선택한 테마이자 켈스톤은 바로 '루비다. 붉게 타오르는 강렬한 컬러의 루비는 종종 다이아몬드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가장 매력적인 보석 중 하나로 떠올랐다. 반클리프 아펠이 특별히 사랑하는 보석, 루비의 특별한 여정. 지난 3월, 방콕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루비 컬렉션은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다.

6



7

## 루비,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담다

1982년, 창업가 중 한 사람인 자크 아펠(Jacques Arpels)은 한 저널리스트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켈스톤은 루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루비는 메종의 유서 깊은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오게 되었다. 짙은 붉은색의 루비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희소성에서도 결코 다이아몬드에 뒤지지 않는 보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남다른 안목으로 반클리프 아펠에 선택된 루비는 반클리프 아펠의 미스터리 세팅 기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컬렉션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곤 했다. 루비는 각각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메종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하이 주얼리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에 선보인 루비 컬렉션은 한마디로 메종의 전문 주얼리 제작 기술과 최상의 켈스톤만을 추구하는 반클리프 아펠의 열정이 만들어낸 전통 깊은 컬렉션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에서는 '켈스톤의 왕'이라 불리는 루비는 한눈에 그 매력을 모두 알 수 없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루비에 깊이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번 루비 컬렉션을 위해 반클리프 아펠은 끝없는 인내심과 열정으로 몇 년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3천 개 이상의 인증된 루비를 수집했다. 최고 품질의 켈스톤을 향한 열정은 브랜드가 설립된 초창기부터 메종에 끊임없는 영감을 선사하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과거에도 아펠 형제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로지 귀한 켈스톤만을 찾아 인도와 극동 아시아 지역으로 수많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반클리프 아펠은 주얼리 특유의 아름다운 색감과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나는 눈부신 광채를 보고 루비를 선택한다. 주얼리의 내부에서부터 반짝이는 광채가 돋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톤에는 독특한 개성과 매력이 있죠. 핑크부터 다크 레드까지, 루비는 찬란하게 빛나는 컬러를 자랑하면서도 매우 진귀하기 때문에 모든 프레셔스 스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냅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스톤 전문가

루비는 하나씩 섬세히 살펴서 선택하며, 반클리프 아펠의 디자이너는 주얼리 자체가 지닌 강렬한 컬러와 화려한 매력이 빛을 발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한다. 서로 다른 특별함을 지닌 켈스톤은 함께 어우러지며, 섬세한 디자인 스케치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스타일, 비대칭적인 디자인, 미스터리 세팅을 포함해 메종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반클리프 아펠의 주얼리에 모두 녹아 있는 것이다. 세 가지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목걸이, 여덟 가지 주얼리로 분리할 수 있는 디자인 등 1개의 주얼리가 여러 개로 분리되거나 다시 합쳐지게 하는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주얼리 내부에 정교하게 숨겨져 있다. 1933년 메종이 특허를 받은 미스터리 세팅 기법은 스톤 아래 위치한 메탈이 보이지 않게 해주며, 스톤을 골드 레일 속으로 밀어 넣어 스톤이 나란히 배열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눈부신 표면이 완성되는 것이다.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장인들은 주얼리를 디자인할 때 유연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한다.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60개의 주얼리 모두 이런 장인 정신이 모두 집약되어 한 편의 우아한 시처럼 상상 속 세계를 서정적인 분위기로 물들였으며, 진귀한 스톤의 매력이 드러나는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해 눈을 땔 수 없게 만들었다. 깊고 영롱한 붉은 컬러의 꽃잎으로 둘러싸인 꽃, 스칼렛 컬러의 리본, 그리고 퍼플 컬러의 페이즐리 모티브까지, 모두 반클리프 아펠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선풍적인 레드 컬러에서 얻은 영감을 그대로 반영한 디자인이다.

이번에 반클리프 아펠이 마련한 <Treasure of Rubies(트레저 오브 루비)> 전시회는 이처럼 루비가 지닌 본연의 컬러에 흠뻑 빠져들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정원으로 초대해, 잠시 시간을 잊은 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모두에게 선사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8



## INTERVIEW



###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CEO, 니콜라 보스에게 묻다

Q 'Treasure of Rubies'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메종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항상 이야기와 영감, 그리고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름다움은 메종의 장인 정신과 테크닉을 통해 탄생한 특별한 켈스톤들에 대한 메종의 찬사입니다. 물론 메종의 모든 작품과 컬렉션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컬렉션은 다른 컬렉션보다 더욱 강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컬렉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난 'L'Arche de Noe(노아의 방주)' 하이 주얼리 컬렉션처럼 스토리에서 얻은 영감에서 비롯된 컬렉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컬렉션들의 경우, 영감의 원천이 된 이야기 에 따른 비일시적인 메탈들이 메종의 탁월한 기술력과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반면, 특별한 켈스톤에 대한 메종의 특별한 사산에서 시작되는 컬렉션도 있습니다. 'Treasure of Rubies'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메종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는 루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롭고 강

렬한 레드 컬러,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과 의미 해석도는 매력적인 켈스톤, 루비에 대한 컬렉션입니다. 매우 솔직하고 단순한 시작점에서 출발하지만, '루비'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통해 루비라는 켈스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루비의 진가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습니. 에메랄드의 경우, 각자의 스펙트럼과 가운데 부합하는 다양한 스톤을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비의 경우, 광경히 복잡한 제약이 있습니다. 루비는 진귀하고 의 스톤으로, 얻을 수 있는 크기가 작습니다. 30~50캐럿의 에메랄드는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같은 크기의 루비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테마로 루비를 떠올렸을 때, 과연 루비로 하나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컬렉션의 모든 작품들은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가에 맞는 스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결정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의 제작 과정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메종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컬렉션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메종은 루비의 희소성과 크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제시하며, 단순한 표현 방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1950~1960년대 디자인과 같은 유서 깊은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루비를 탁월한 켈스톤으로 바라보는 메종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번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Q 루비는 특별히 반클리프 아펠에 대한 애매적인 켈스톤이군요. 네, 맞습니다. 루비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루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켈스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종의 하이 주얼리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언제나 최상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컬렉션을 출시하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선, 창조, 그 자체의 고유한 여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오랜 시간 동안 루비의 매력적이고 다양한 컬러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루비는 메종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며, 메종의 시그니처 작품으로 탄생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비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은 메종이 재해석한 루비 작품들과 사랑에 빠졌고, 이는 특별한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주문으로 탄생한 특별한 작품들은 역사에 기록되었고, 여전히 화제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미스터리 세팅 기법을 통해 루비는 메종에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세팅은 강렬한 디자인, 차별성, 컬러와 스톤의 강도, 장인 정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 요소가 결합된 세팅 기법입니다. 이는 메종만의 뛰어난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Q 'Treasure of Rubies'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세 단어로 정리해주시겠습니까? A 레드(red)가 물론, 그 첫 번째라고 말하고 싶고, 다음은 '놀라움(surprise)'과 다양성(diversity)입니다. Q 3년에 하이 주얼리 시장이 한국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에 하이 주얼리 시장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반클리프 아펠 역사 작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4월 DDP에서 진행한 '반클리프 아펠이 들려주는 노아의 방주 전시회'는 앞서 선보인 파리, 홍콩, 뉴욕에서보다 많은 방문객 숫자를 기록하며 놀랍고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이 주얼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는 한국 고객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발전은 역사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마켓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빠른 습득과 소비, 그리고 문화 전반의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그런 반면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전통과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과 가치가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의 노획기도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언론을 통해 빠르게 학습하고, 매일 놀라운 스토리를 접하면서도, 거기 내재된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갤러리나 박물관을 꼭 방문하는데, 언제나 그 변화와 달라진 사산에 많이 놀라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현재 기획 중인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몇 년 안에 서울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_니콜라 보스(Nicolas Bos, 반클리프 아펠 글로벌 회장 겸 CEO)



16



9



10



11

1 달착 가능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33.06캐럿의 쿠션 컷 루비 16개가 돋보인다. 2 이번 루비 컬렉션 전시회의 메인 이미지 중 하나. 붉은색 물감의 수채화 일러스트레이션이 동양적인 면서 산비탈이다. 3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루비가 어우러진 브레이슬릿. 4 달착 가능한 클립이 달린 목걸이. 가운데 18.2캐럿의 쿠션 컷 루비가 장식되어 있다. 5 역시 달착 가능한 펜던트가 달린 아펠, 5.63캐럿의 페이즐리 루비가 주인공이다. 6 단색해 보이면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디자인의 목걸이. 5.03캐럿의 오벌 컷 루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7 1937년에 탄생한 모란꽃 모티브의 피오니 클립, 미스터리 세팅 기법으로 재해석하며 이집트 여왕이 소장했던 컬렉션이다. 8 브레이슬릿을 구성하는 총 35.05캐럿의 루비 13개. 9 루비 네크라스와 브레이슬릿 세트. 1939년 카탈로그에 실린 일러스트다. 10 미스터리 세팅의 더블 피오니 클립 드로잉(1937년). 11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35.05캐럿의 오벌 컷 및 쿠션 컷 루비 13개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 12 다이아몬드의 43.70캐럿의 오벌 컷 및 쿠션 컷 루비 28개로 만든 목걸이. 13 프롬 세팅 작업. 14 골드 프레임 위 세팅 작업. 15 세한 스케치 작업. 16 10.35캐럿의 카보숑 컷 루비 반지.

12



13

14



15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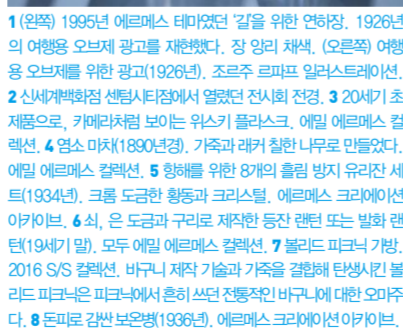
4



5

# 여행자, 꿈과 함께 떠나다

인생에서 여행이 갖는 의미는 언제나 남다르다.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변화를 주며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떠남'의 가치. 그 여정에 에르메스는 브랜드가 함께한다면 설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이는 럭셔리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 남다른 헤리티지와 철학을 간직한 여정에 동참해보자.



## 여행과 나, 그리고 편안한 아름다움

에르메스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9층 문화홀에서 <에르메스, 꿈을 꾸는 여행자(Hermès Heritage - In Motion)>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전시에서는 1837년 에르메스의 창립자 티에리 에르메스(Thierry Hermès)가 설립한 마구용품 제조사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에르메스의 역사를 소개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과 크리에이티브들이 수 세대에 걸쳐 선보인 에르메스의 상징작인 테마, 색칠과 오브제를 통해 에르메스가 지닌 기차와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전시였다. 이번 순회전은 뷔프랑스의 도시 루베에 소재한 라 피스(La Piscine) 산업 예술 박물관의 큐레이터 브루노 고디송(Bruno Gaudichon)과 디자이너 로렌스 폰테인(Laurence Fontaine)이 참여했으며 총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다.

<에르메스 마구의 뿌리(Harnessing the Roots)>와 <에르메스의 특별한 색상, 루즈 에르메스(Rouges Hermès)>에 이어 열린 이번 <에르메스, 꿈을 꾸는 여행자> 전시는 비행과 여행, 그리고 빙람에 대한 욕망이 담긴 다양한 면에서도 친근한 오브제를 선보여 잠시 과거를 회고하며 여행하는 선물 같은 휴식을 제공했다. 에르메스는 근대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갈망하던 시기에 탄생했다. 이동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동시에 혁명이기도 했다. 에르메스는 그 변화 속에서 상상하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또 에르메스에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우아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은 동시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변화에 가치를 더하며 끊임없이 아름답게 발전해왔다. 편안함과 아름다움, 바로 이것이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것이며 그를 위한 동기부여는 바로 움직이는 것, 떠나는 것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행' 하면 떠올릴 만한 기본적인 제품은 물론, 자칫 놓치기 십지만 꼭 필요한

고 유틸리티 있는 제품까지 선보여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컬렉션을 선보였다. 에밀 에르메스(Émile Hermès)의 소장품과 함께 에르메스 아카이브 컬렉션(The Hermès Conservatoire de Creations)을 포함한 칸템파리 작품도 공개되었는데, 전시한 아카이브 컬렉션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인 '주 데 옴니버스와 블랑셰(The Jeu des Omnibus et Dames Blanches)', '보드게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원을 따라 그린 마차'가 새겨진 최초의 에르메스 스카프, 거대한 크기와 견고함으로 신화 속 거인을 위해 만든 듯한 마법의 침실(Seven-league boots)을 연상시키는 가죽 부츠, 심플하고도 우아한 플라니르 데르메스(Flâneur d'Hermès, 자전거), 1920년에 탄생한 삭 푸어 로토(Sac pour L'Auto, 자동차용 가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볼리드 피크닉(Bolide Picnic) 백 등을 통해 에르메스 오브제들이 어떻게 여행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에르메스의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주는, 펼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어 보관하면 잊어버릴 정도로 간편한 피파(Pippa) 데스크와 카틀러 세트도 보이지 않게 잘 담을 수 있는 피크닉 지팡이(The Cane Picnic), 항해를 위한 8개의 홀링 방지 유리잔 세트인 인버서블(Inversables) 등이 그것이다.

편안함과 아름다움, 움직임과 우아함, 그리고 간결함. 이것이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출발'과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에르메스를 이끌어온 모티브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필요한 이동, 휴식, 추억 등 모든 것들에 에르메스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에르메스의 이 우아한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 let's get Ugly

런웨이와 리얼 웨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글리 스니커즈, 그 트렌드를 이어갈 2019 S/S 신제품을 모았다.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위부터) 클래식한 메시 라닝화에 두툽한 밑창과 컬러 포인트로 재미를 준 스프리드 스텝 스니커즈 9921원대 **보타가 베네타**, 하이킹 슈즈에서 영감을 얻은 슈레이스 와 청카한 플니 모안 러버 솔이 특징으로 러버, 스웨이드, 레더 등 다채로운 소재를 조합한 스니커즈 9921원대 **살비토레 페라타**, 어머니를 장문한 여러 개의 지퍼 트림 사이로 두 가지 다른 색상의 슈레이스를 묶어 연출하는 알틴 스니커즈, 뽀족한 스텝이르 모양의 밑창을 더해 한층 멋스럽다. 1백18만원대 **주세페 자노티**, 패브릭과 나뭇 가지에 붙은 VLTN 로고를 프린트한 VLTN 그리드 비운스 스니커즈, 뒤쪽에는 발착 가능한 것일 장식을 더해 화려한 스타일링을 즐길 수 있다. 1백39만원대 **발렌티노 가리버나니**, 그래픽적인 투톤 컬러의 오버사이즈 고무 밑창을 더한 런웨이이 펠스 스니커즈, 하이킹 부츠 스타일의 슈레이스외 아일렛 디테일이 특징이다. 1백52만원대 **루이 비통**, 축약된 장선한 가죽 소재의 XXX 로고 장식이 귀여운 체스터 하이탑 스니커즈 8321원대 **에르메스지노 제네라**, 비비드한 원색으로 시선을 끄는 클리우드버스트 스니커즈, 슈즈의 아머 부분은 니트 메시 소재로 처리했다. 1백만원대 **프라다**, 에디터 **이아미**

보타가 베네타 02-3438-7882 살비토레 페라타 02-3430-7854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발렌티노 가리버나니 02-6905-3610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지노 제네라 02-518-0285 프라다 02-3442-1830

레드 & 화이트 스트라이프 드레스  
 6백50만원 구찌, 화이트 리본 장식  
 펌프스 가격 미정 막스마라, 골드  
 에메랄드 아이링 4백50만원 타셀로,  
 빈티지 그린 컬러 미디엄 주미백  
 4백30만원, 미니 체인 슬더 플랩 백 그린  
 크로카다일 1천4백70만원 모두 구찌.

# Another Bag

나를 표현하는 이번 시즌  
 또 하나의 백. 2019 S/S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mok jung wook



멀티 패턴 재킷  
 1천1백44만원, 다크  
 브라운 셔츠 가격 미정,  
 브라운 패턴 팬츠  
 1백24만원, 멀티컬러  
 토트백 3백8만원 모두 토즈.





블랙 레더 셔츠 3백47만5천원,  
화이트 니트 롱기격 미장, 레더  
팬츠 가격 미장, 그린 플라치  
3백60만5천원 모두 **보태가 베네다.**

나뭇잎 프린트 재킷 1백9만원,  
셔츠 가격 미장, 팬츠 2백65만원,  
샌들 가격 미장 모두 **살비토레**  
**페라기오,** 드롭 아이링 28만원  
**타니 by 마네키니,** 그린 백 2백59만원,  
패턴 백 3백99만원 모두 **살비토레 페라기오.**



패턴 재킷, 스카트,  
블랙 니트 톱, 블루  
트윈스 백, 블루 버킷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화이트 레오파드 프린트 실크 셔츠  
1백52만원, 프린트 플라츠스카트  
1백58만원, 캐주얼 플라 프린트  
이너 드레스 가격 미정, 화이트  
브라스 아이링 65만원 모두 **버버리.**  
스몰 TB 백 초크 화이트 & 라이트  
캐주얼 2백95만원, 미디엄 TB 백  
블랙 3백15만원 모두 **버버리.**



그레이 체크 재킷 가격 미정, 레드 나일론 블로 셔츠 가격 미정, 파이론 레더 스커트 가격 미정, 누드 컬러 펌프스 1백13만원 모두 **마우미우**, 잔주 장식 후프 이어링 23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레드 시파이노 토트백 가격 미정 **프라다**, 그린 골드 체인백 2백28만원 **마우미우**.

핑크 트윈드 재킷, 팬츠, 프린트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주얼 이어링, 잔주 초커 모두 가격 미정 **빈티지 할라우드**, 아이보리 스몰 SAC백 가격 미정 **메종 미르자엘라**, 라넨 자수 소재 체인 숄더백 가격 미정 **샤넬**.

헤어 **이일중**  
메이크업 **김도원**  
모델 **한지은**  
어시스턴트 **김원민**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구피 1577-1921  
믹스미라 02-3467-8326  
타셀로 02-792-0523  
토즈 02-3438-6008  
마우미우 02-541-7443  
타니 by 마네타니 02-3479-1299  
프라다 02-3442-1830  
샤넬 080-332-2700  
빈티지 할라우드 02-6224-2203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살바토레 페라가모 02-2140-9664  
에르메스 02-542-6622  
바버리 02-3485-6600



# curious Case

궁금하고 궁금하다. 쏟아지는 신상 속에서 고른, 올봄 사용해 보면 좋을 남성 그루밍 신제품 10.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비스 스퀴처와 차약 하얀 도자기 에 로고를 새긴 스퀴처. 차약과 함께 선물하면 좋다. 4만 원, 은은한 산뜻한 단맛이 혼합된 아미그달리 리코리스 향 차약 85ml 1만6천 원. 문의 02-2201-1227

아쿠아 디 파르마 소프트 웨이빙 크림과 바비 에네 세이빙 브러시 사용하기 쉬운 크림 타입으로 두꺼운 수염도 편안하고 세밀하게 면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피부 보습을 돕는 8할 루틴산과 항산화 효과로 인색 정화도를 도와주는 식유 오일, 그리고 모공 관리까지 가능한 레몬 에센셜이 들어 있다. 125g 8만5천 원. 친환경 소재의 부드러운 세이빙 브러시 39만 원. 문의 070-4077-5107

사실리 선라이프 G.E. SPF 50+ 데일리 인티 에이징 케어 효과를 통해 태양에 피부가 노출되어도 젊은 피부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주름, 미세 라인, 스킨이 생기는 것까지 예방해준다. 2시간마다 덧바르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0ml 28만 원. 문의 080-549-0216

프라다 브릭 백 사파이는 소재의 화이트 프라다 브릭 백, 탈착 가능한 솔더 스트랩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블랙 컬러로도 선택 가능하다. 작형이 단단하게 라이 컴팩트 손잡이가 달려 있어 사용하기 편하다. 1백90만 원대. 문의 02-3442-1830

클라린스 맨 수퍼 모이스처 젤 하루 동안 남성 피부가 땀에 젖는 수분의 양은 200ml. 강력한 보습은 물론 피부를 보호하고 예민까지 중성까지의 제품이다. 무향기 없는 촉촉한 텍스처로 지·복합성 피부에 적합하다. 50ml 5만8천 원. 문의 080-542-9052

보이드 스텔 르 스킨 케어 8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선풍한 통풍이 워터부스트 아이브로 폼을 부드럽고 편안해 누구나 손쉽게 깔끔한 눈썹 라인을 연출할 수 있다. 206립 브라운 컬러 0.27g 5만9천 원. 문의 080-332-2700

팬탈리온스 커즌 매튜 매튜케어 개성 넘치는 인물을 향수로 탄생시키는 팬탈리온스의 포트레이트 컬렉션. 이번 새로운 라인인 Chapter 6의 주인공은 늘 문재림 일상은 장년스러운 커즌 매튜(Cousin Matthew)다. 만다린으로 프레스하고 스파클링하게 시작해 피츨리로 리치하게 마무리하는 우디 시트러스 향이 특징. 밝고 자신감 넘치는 커즌 매튜를 표현했다. 75ml 37만 원. 문의 02-3213-2057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 맨즈 핸드 바디 워시 풍부한 타카시 로즈 페페이 스파클링한 핑크 페퍼톤과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감미 향을 풍긴다. 피피루스 우드와 화이트 앵버가 선사하는 안정감과 청량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225ml 6만2천 원. 문의 02-3479-1688

보이드 스텔 르 밤 레버르 메트릭 모이스처아 이징 크림으로 호호바 오일과 사야버, 그리고 비타민 X 유도체가 인물을 보호하고 8시간 동안 보습 효과를 준다. 번들거리지 않고 신뜻하게 마무리되어 남성에게 적합하다. 3g 4만6천 원. 문의 080-332-2700

오파 아쿠아 세 비비 헬시픽 피부에 바르는 비타민 B6. 피부 장벽 보호 기능이 탁월한 판데놀과 뛰어난 항산화 효과의 베타글루칸, 보습 효과가 뛰어난 스킨 셀레늄을 함유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연출해준다. 15g 4만5천 원. 문의 070-8891-3000 에디터 정미윤



# the ultimate S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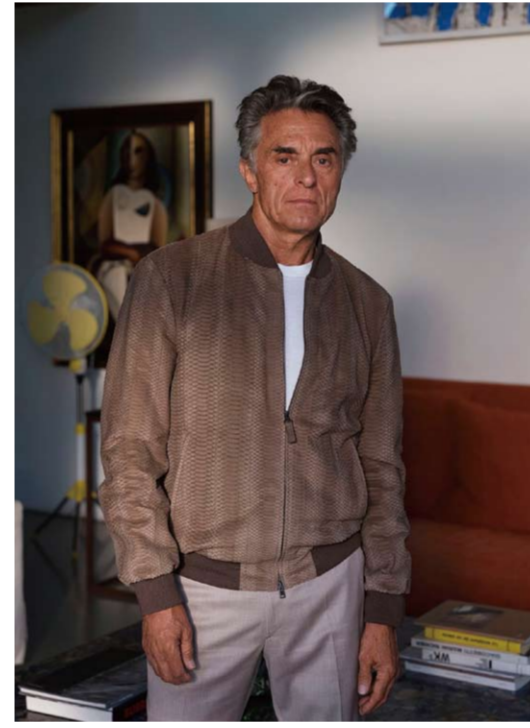
브리오니를 입는다는 것은 단지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인 정신을 소유하고 클래식 문화를 향유함을 뜻한다. 브리오니의 2019년 S/S 컬렉션을 소개한다.

## 핸드메이드 테일러링의 진수

이탈리아 로만 스타일 슈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브리오니가 프랑스 파리에서 2019년 S/S 컬렉션을 선보였다. 브리오니는 194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탄생해 70여 년 동안 완벽한 테일러링 맞춤 슈트(비스포크)를 선보여왔다. 마스터 테일러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섬세한 테일러링과 시대를 아우르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오랜 시간 동안 메종 브리오니를 슈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열정과 자긍심을 지닌 마스터 테일러의 인내심으로 채운 제작 과정이 이를 말해준다. 60년의 중간 디테일,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핸드 스티치 등 2백20개의 프로덕션 과정을 거쳐야 슈트 한 벌이 완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완벽한 형태를 갖춘다. 브리오니가 만드는 슈트 중 25%는 단 한 사람의 고객에 맞추어 만든 패턴과 특별 주문한 디테일에 따라 만드는 맞춤복이다. 세계시장의 각기 다른 수많은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패턴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패턴 전문가로 구성된 테크니컬 팀이 있어 이른바 '디테일 디스트리뷰트' 역할을 담당한다. 또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테크니컬 부서는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예술적 재능과 기술적 요소를 잘 배합해 빈틈없이 모든 제작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 다채로운 패브릭, 정교한 테일러링

2019년 S/S 컬렉션은 브리오니 고유한 사티노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보온성이 뛰어난 동시에 가벼움을 극대화한 아우터와 시원한 소재의 여름 상품 등 계절을 넘나들며 전체 시즌을 아우르는 컬렉션을 구성했다.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다양한 패턴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울과 코튼은 물론 섬세한 실크와 오건자를 사용해 정교한 테일러링이 더욱 빛났다. 전통적인 사야서커, 슬리로 원단을 적용해 클래식한 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인체 공학의 힘을 빌려 실용성과의 균형을 맞췄다. 다양한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기성시대와 젊은 시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컬렉션을 완성했다는 점도 인상 깊다. 정교한 공정을 통해 완성된 늘씬한 실루엣의 화이트 라틴 텍스처와 함께 실크 소재의 데님, 뽀족 누벅 소재의 블루중을 구성한 것. 공작새 깃털과 자연을 담은 과감한 테프스트리 포인트 역시 클래식한 세대를 아우르는 젊은 감각을 더한 멋진 한 수다. 이번 컬렉션은 화이트와 밝은 베이지 등 밝고 경쾌한 톤에 레드, 핑 그레이, 스카이 블루 등 자연스러운 컬러 팔레트를 선보인다. 스카이 블루에서 데님과 네이비로 이어지며 여름 컬렉션답게 품격 있는 청량감을 선사한다. 스웨이드 로퍼, 파나마 햇, 페이스리 스킵 등의 액세서리가 이번 시즌 우아하고 감각적인 브리오니 룩에 힘을 실어준다. 수십 년을 거쳐온 패턴을 고르는 인력, 대를 이어가는 완벽한 테일러링, 까다로운 옷 짓기. 몸에 꼭 맞으면서도 편안하고 스타일을 해치지 않으며 클래식한 품격을 완성하는 브리오니의 세계를 경험해보자. 문의 02-3274-6483



● sponsored by Brioni



# truly Exceptional

바쉐론 콘스탄틴은 지난 2백64년의 풍부한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시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소장 가치가 높은 빈티지 타임피스를 완벽하게 복원해 다시 살아숨 쉬도록 만든 컬렉션, 레 콜렉셔널을 소개한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바쉐론 콘스탄틴이 지난 3월 4일부터 양일간 <레 콜렉셔널(Les Collectionneurs)> 전시를 통해 서울의 시계 애호가들에게 진귀한 빈티지 타임피스를 소개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레 콜렉셔널은 메종의 헤리티지 전문가가 무브먼트 부품 하나하나의 정공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해 선별하고, 숙련된 워치메이커가 완벽하게 복원한 빈티지 타임피스 컬렉션. 이는 단순히 시계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메종의 뜻깊고 소중한 유산 중 한 조각을 소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1913~1931년 제작한 포켓 워치 4피스와 1927~1965년 제작한 손목시계 14피스까지 총 18점에 이르는 빈티지 타임피스를 소개했다. 특히 행사를 진행한 하이엔드 오디오 메종 오디(Ode)의 3층에 위치한 청음실에서는 이번 레 콜렉셔널 컬렉션의 하이리프트인 미닛 리피터 모델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1951년 제작한 이 제품은 1940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40개 이하로 생산한 희소성이 매우 높은 모델로 미닛 리피터 시계 중 보기 드물게 울트라 신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소리 또한 70년 전 기술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청명하다. 한편 행사를 위해 방한한 메종의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안 셀모니가 직접 컬렉션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메종의 역사와 기술력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에 앞서 <스타일 조션일보>가 조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에디터 **이해미**



1 1931년 제작한 플래티넘 소재의 울트라 신 포켓 워치(Ref. 11863). 메뉴얼 칼리버 RA 1712/12를 탑재해 6시 방향에 스톱 세컨즈 창이 위치하며 간결하고 입체적인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가독성 높은 마넛 트랙, 컴 오일 렌즈로 장식된 투톤 다이얼이 인상적이다. 가가 이리데코 스타일의 타원형 팬던트 고리를 다녔다. 2 레 콜렉셔널 행사장 풍경. 3 1946년 출시된 모델(Ref. 10642)로 슬리브 다이얼 위 독특한 스타일의 벨 레미터 눈금과 카본스 킷 옐로 골드 소재 인덱스, 미들 케이스에 통합된 긴 리드 등 특징적인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름 36mm의 옐로 골드 케이스로 메뉴얼 칼리버 13-434를 탑재하고 3시와 6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창이 위치한다. 4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마넛 리피터 기능을 갖춘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Ref. 11761). 1944~1951년에 40개 이하로 생산한 모델로 높은 희소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한 모델은 1951년 제작한 것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적용한 것에 비해 매우 얇고 간결한 케이스가 특징이다. 물방울 모양의 인덱스와 곡선형의 리드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강조했고, 오스카를 연상시키는 가우세 페인의 슬리브 다이얼 역시 돋보인다.



## interview with Christian Celmoni (바쉐론 콘스탄틴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



**Style Chosun(이하 S)** 당신은 스타일 & 헤리티지 디렉터로서 유구한 유산을 바탕으로 새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2백60년이 넘는 역사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Christian Celmoni(이하 C)**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메종이 지난 노후와 전통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스타일, 기술력, 마감 기법 등의 요소가 적당히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S** 지난 29년간 여러 부서에 몸담아왔다고 들었다. 누구보다 메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당신의 관점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사대를 관통하는 철학은 무엇인가? **C** 1892년 창립자 프랑수아 콘스탄틴이 남긴 유명한 문장이 있다. '가능하면 더 잘하라.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가 창립 초기부터 지켜온 철학이다. 이는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 있어 언제나 타협하지 않는 높은 품질과 완벽한 피니싱의 핸드메이드 워치를 선보여온 이유이기도 하다.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중 하나인 'One of Not Many'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해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 최고 수준의 정교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S** <레 콜렉셔널> 전시를 위해 방한했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특별한 타임피스를 직접 소개해달라. **C** 20세기 초반 제작한 포켓 워치부터 심플한 손목시계와 마넛 리피터를 장착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손목시계까지 총 18점에 이르는 다양한 빈티지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핑크 골드 케이스의 트리플 캘린더 워치(Ref. 12038)는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는 이 스타일 워치와 같은 모델로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계이자 우아하고 클래식한 멋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로는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를 장착한 포켓 워치(Ref. 12061)가 있다. 큰

다이얼에 3개의 타카미터 스케일을 더한 이 모델은 1929년 제작한 것으로 심미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1965년 제작한 것으로 두께가 1.4mm에 불과한 울트라 신 칼리버 1003을 탑재한 모델(Ref. 12028)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순수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패트리오니 컬렉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S** 빈티지 타임피스만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C** 시계뿐 아니라 카메라, 모터바이크를 비롯해 다양한 업계 전 분야에서 빈티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디자인의 황금시대였고,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가득했던 1950년대 혹은 그 전후의 물건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품의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S** 소더비, 크리스티 등 대표적인 경매사에서 희소성이 있는 빈티지 워치 중 가장 구매되는 것은 물론 빈티지 워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경매 기관이나 시계 전문점도 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C** 예전에는 오직 소수의 워치 컬렉터만 관심을 갖던 분야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빈티지 워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바쉐론 콘스탄틴처럼 역사, 디자인, 기술력,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갖춘 브랜드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몇몇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빈티지 워치가 제작되던 시기의 많은 시계가 하나같이 수작업으로 탄생했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S** 자신의 빈티지 피스를 직접 사들여 더욱 가치 있는 제품으로 복원하고 보존사와 함께 재판매하는 브랜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계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지 간략한 과정을 소개해달라. **C**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같은 옥션 하우스, 전문적인 시계 상인, 선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의 빈티지 모델을 사들인다. 모든 시계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모델의 중요성, 희소성, 컨디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후 시계를 복원할 때는 케이스, 다이얼 등 외형적인 요소는 최대한 본래의 것을 유지해 빈티지 워치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무브먼트의 경우 워치 오라틴 시계들이다 보니 세척, 오일링, 부품 교체 등이 필요해 분해 및 수리, 재조립 과정을 거친다. **S** 바쉐론 콘스탄틴과 같은 검증된 경로를 통해서가 아닐지라도 빈티지 타임피스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거나 주의할 점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C** 레 콜렉셔널의 경우 메종에서 발행한 정품 인증서 및 2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함께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매하는 시계의 컨디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계를 전문가에게 가져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패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like cherry Blossom

만개한 벚꽃이 햇빛에 반짝이며 흩날리는 봄. 그 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참나를 담은 타사키의 사쿠라 골드 소개한다. 타사키 고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는 사쿠라 골드는 핑크 골드의 붉은 기와 노란 기를 덜어내 피부 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우아한 신부를 위한 타사키의 사쿠라 골드 소재 트라페지오와 피아체레 솔리더를 주목하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윗부분) 초창적인 카팅이 모던함을 더한 사쿠라 골드 소재의 밴드 링 트라페지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사쿠라 골드 소재의 링 트라페지오, 사티홀더의 다이아몬드 카팅 기술로 탄생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사쿠라 골드 소재의 피아체레 솔리더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객원 에디터 남지현

● sponsored by Vacheron Constantin



# editor's Pick

봄 햇살로 설레는 마음을 담아 <스타일 조선타일보>가 준비한 4월의 뷰티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아메리칸 스타일라 시안 립스틱 국내 출시하는 24가지 컬러 중 976번 비 디올(Be Dior)은 너무 진하지 않은 반짝이는 레드 컬러가 강해진다. 마치 보습제를 바르듯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며 하루 종일 촉촉하기까지 하다. 여러 번 덧발라도 과하지 않다. 3.2g 4만2천원. 문의 02-3480-0104. *by 에디터 장리윤*

샤넬 레 베쥬 헬시 글로우 쉬어 파우더 #N'20 가브리엘 샤넬의 실제 사랑(Chanel)을 베이지색 케이스 카베는 물론 파우더 표면에도 새겨 넣어 더욱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피부 화장 마무리 단계에서 내장된 브러시로 살짝 터치해주면 반들거림을 잡아주는 동시에 건강한 윤기를 더해준다. 12g 1만1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이혜미*

조 말론 런던 프랑자파니 플라워 코롱 신뜻한 레몬 향이 생애는 날이다. 날씨가 좋을 땀이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 6월이던 더더욱. 그런 날 뿌리면 좋은 코롱으로 제스민과 레몬 향, 아늑한 일광일광과 크림이한 샌들우드 향이 느껴진다. 100ml 19만2천원. 문의 02-3440-2750. *by 에디터 장리윤*

이솝 진동 페이스 클렌징 밀크 아외 활동은 많아지는데 미세 먼지가 걱정인 봄, 제대로 된 클렌징은 필수 뷰티 아이템이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세정력을 갖췄다는 제품은 세안 후 상하게 말리고, 오히려 고민을 피부도 손상될 것 같아 피하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 이 제품은 우척 부드럽고 가볍고 순하다. 기가 세진 듯한 밀크 제형이라 사용 후에도 땅기기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스카이어를 한 듯 촉촉하기까지 하다. 200ml 6만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장리윤*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베이션 트리트먼트 로션 프레스시 벗꽃 에디션 해너나 손으로 만 라세시나나 벗꽃 추출물과 이차와 현의 진동 사계 제 작용을 이용한 벗꽃 효모, 발효된 쌀 앙금 추출물을 함유한, 정성을 담은 로션이다. 풀처럼 가벼운 텍스처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맑고 투명한 듯한 느낌이 든다. 150ml 14만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장리윤*

에르메스 은 자로성 루라 라군 브랜드의 진수 조항사 크리스틴 나이젤이 베니스의 신비로운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향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향기를 상상했다는 말처럼 은은하고 신비로운 우드와 플로랄 향이 감미롭게 느껴진다. 자연의 색을 담은 그래픽이선 컬러 보틀 역시 아름답다. 100ml 16만원. 문의 02-542-6622. *by 에디터 이혜미*

내츄라비에 by 라베르바 다이아몬드 코론 울트라 리치 크림 정식 수딩이전부터 청담동 시모넬 크림으로 유명했던 제품. 아침저녁 사용하는데, 제품 이름처럼 코론 속에 들어가 있는 듯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해주는 리치 크림이다. 특히 저녁 세안 후 바르고 지면 아침에 피맛같이 확실한 갈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ml 4만7천원. 문의 02-2056-1221. *by 에디터 장리윤*

샹젤미 퓨처 스킨 파운데이션 #업리버스터 쿠버를 열고 패키지를 거꾸로 뒤집어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을 만큼 제형이 끈끈한 젤 타입 오일프리 파운데이션. 핑크, 핑크, 뉴트럴 톤을 바탕으로 총 다섯 가지 컬러 섀이드를 갖췄으며, 결정을 가리는 동시에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30g 11만8천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이혜미*

닥터지 센시블 마이트 크림 파란, 마세린 오일, 티로 색소, 계면활성제 등 10가지 불필요한 성분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성분만 담아 민감하고 약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가려준다. 합성향료까지 제외해 저 자극 제품을 바랐을 땀 아무 향이 나지 않는 것이 어땠게 느껴졌지만, 부드럽게 문질수록 자극 없이 피부 깊숙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좋다. 155ml 3만5천원. 문의 1544-8245. *by 에디터 이혜미*

돌체가베나 블러쉬 쿠션 스킨 #코랄03 수채화 물감을 연상시키는 맑고 연한 핑크색이 매력적으로 자연스러운 핑크를 연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피부차에 꼭 들어가야 할 킨 타닌으로 부드러운 스킨 향의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해 톡톡 두드리며 바르면 금세 예쁜 볼이 완성된다. 4.3ml 4만2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시세이도 클리어 스킨 UV 프로텍터 투명한 색을 띠는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 후타기 간편한 작고 가벼운 패키지에, 직접 손으로 바르지 않아도 돼 언제 어디서나 덧바를 수 있으니 울퉁과 여름 기법 속에 늘 들고 다녀 할 우산순우 아이템으로 당첨이다. 15g 2만9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동인비 자생 알레아센스 마스크,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홍삼의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응축한 에센스. 예상보다 훨씬 은은하고 향긋한 홍삼 향이 가깝고 부담 없는 텍스처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을 듯하다. 60ml 12만원. 문의 080-710-2304. *by 에디터 이혜미*

랑콤 제 피피 프라보이오닉스 아이와레쉬 수채화 속눈썹까지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을 다한 제품으로, 눈가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뛰어나다. 인내한 대로 눈 밑마리부터 눈꼬리 쪽까지 애플리케이터를 회전 시키며 마사지를 하면 눈 밑을 건조 속눈썹 뿌리에도 바르고 나니 눈매가 커 보이고 무엇보다 디크셔도 알아주는 듯하다. 20ml 1만2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장리윤*



## JEWEL&WATCH

**까르띠에 베누아 일렉트 주얼리 워치** 프랑스어로 '욕조를 뜻하는 베누아에서 이름을 따온 시계로, 가늘고 긴 타원형 케이스가 특징이다.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하며 5월 전 세계 공식 론칭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4월에 가장 먼저 독점 공했다. 문의 02-1566-7277

**불가리 불가리 불가리 클래식** 1970~1980년대 팝 감성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제안한다. 컷, 밴글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은 서로 다른 사이즈의 로즈 골드 소재 다스크를 회전해 27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그 밖에도 심플 이어링과 비드윈더 핑거링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56-0172

**타사키 트라페지오 링** 워딩 시즌을 맞아 구조적인 볼륨감이 돋보이는 트라페지오 링을 추천한다. 브랜드 고유의 장채성을 담은 사쿠라 골드™와 플래티넘, 2가지 소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에르메스 워치 까레 아쉬** 2010년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니컬 견속가인 마크 베르티에가 디자인한 까레 아쉬 워치를 재해석한 새로운 모델을 소개한다. 다이얼의 초침 색상을 인허 맞춰 옐로우와 레드 컬러를 인허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한 카프 스트랩을 더했다.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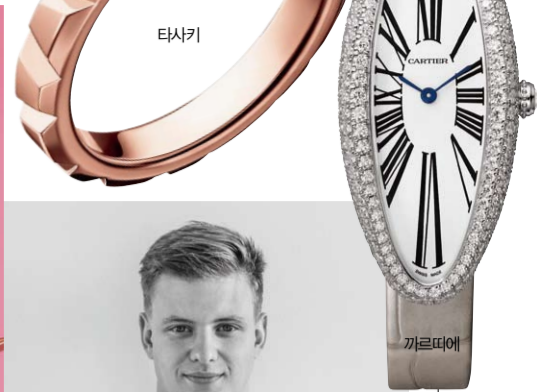
**리처드 밀 새 브랜드 파트너** 리처드 밀이 독일의 전도 유명한 드라이버 맥 슈마허를 브랜드의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다. 2014



샤넬 워인 주얼리



불가리



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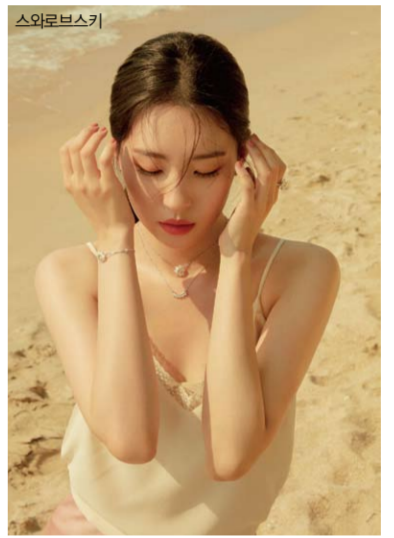


까르띠에

년 카팅 월드와 유러피언 챔피언십 등에서 준우승을 거둔 그는 최종 목표를 포물러 원으로 꿈으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의 02-512-1311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리쉬**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유로운 스타일링으로 사랑받는 코코 크리쉬 컬렉션에 신제품을 추가했다. 링, 이어링,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켈트 패턴이 돋보이며 옐로우 골드, 베이지 골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해 한층 세련된 매력을 뽐낸다. 문의 080-200-2700

**스외로브스키 신사인 컬렉션** 태양과 해바라기를 모티브로 한 신사인 컬렉션을 공개한다. 테이퍼드 바케트 스톤과 카나리 옐로우 컬러 스톤의 조합이 돋보이는 이어링,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등 다양한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1522-9065



스외로브스키

리처드 밀

# SHOWROOM

## LIFESTYLE



**루트 프랑카스텔** 왓슨과 측근 유리로 내부의 섬세한 움직임 감할 수 있는 스키텐 디자인의 오르골을 소개한다. 1개의 실린더로 3개 멜로디까지 감상 가능하며 소풍, 모차르트부터 쿤까지 다양한 멜로디를 선택할 수 있고, 인디케이터를 통해 연주 중인 멜로디의 숫자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문의 02-516-0016

**시몬스 사비나** 천연 라탄, 오크 원목 소재와 비대칭 디자인이 돋보이는 데블 침대 '사비나'를 소개한다. 화이트 내추럴 오크, 버건디 오크, 2가지 색상으로 출시하며 룸 세트인 사비나 화이트 수납장, 협탁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1899-8182

**살바토레 페라가모 간치니 카툰 미니 백** 더블 간치니 로고 장식이 돋보이는 올백 소재 미니 백을 추천한다. 다양한 컬러와 프린트로 출시하며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더해 슬더 또는 크로스로 연출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문의 02-2140-9664

**브리오니 2019 S/S 컬렉션** 코튼, 실크, 오가자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정교한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브리오니의 2019 S/S 컬렉션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화이트와 밝은 베이지에서 시작해 레드, 스카이 블루, 네이비에 이르는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를 바탕으로 아우터, 데님, 텍시도는 물론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선보인다. 문의 02-3274-6483



브리오니

브루넬로 쿠치넬리



살바토레 페라가모



**리퍼리 아티스트 안철현과 협업** 3월 27일 홍콩 아트 비엔날레에서 배일을 벗은 빛의 방정식을 주제로 아티스트 안철현과 협업해 판화, 컬러, 반사의 속성을 탐구하는 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문의 02-511-6626

## BEAUTY



**로르제이나 서머 토트백** 밧수 및 얼룩 방지 코팅 처리된 리넨과 코튼 캔버스에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서머 토트백을 추천한다. 가방 상단부를 사각 혹은 사다리꼴로 변형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백과 함께 제공하는 3개의 파우치는 소품에 맞춰 짝은 물감까지 보편 가능해 실용적이다. 문의 02-546-0615



CHANEL